



프린벨트(주), 소마엔지니어링 플렉소 인쇄기 국내 공급 친환경 · 소량다품종 연포장 · 종이 인쇄 가능

프린벨트(주)(대표이사 이근성)는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체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마엔지니어링의 친환경 연포장 라벨용인쇄기를 우리나라에 독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근성 프린벨트 대표이사를 비롯해 토마스 브라나 소마엔지니어링 본사 중동·아시아지역담당 매니저, 요크 쿨비츠 소마엔지니어링 아시아 사장이 참가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날 간담회에서 이근성 프린벨트(주) 대표이사는 “모든 산업 분야가 그렇듯이 인쇄시장의 트렌드 역시 친환경 인쇄와 소량 다품종 인쇄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친환경과 소량 다품종의 고품질인쇄를 한 번에 실현할 수 있는 소마엔지니어링의 플렉소 인쇄기를 통해 플렉소 인쇄시장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 우리 회사 역시 플렉소 인쇄 전문업체로 성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하이델베르그 퇴사 이후 오프셋인쇄를 위한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소마를 소개하는 것을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동안 그라비어 인쇄 중심의 연포장이나 포장용지는 그라비어 인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플렉소 인쇄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매니저인 토마스나 아시아 담당 사장 요크 역시 KBA와 고모리 등 오프셋인쇄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으로

인쇄 특성과 시장의 필요성을 너무나 서로 잘 알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글로벌 브랜드가 주도하는 플렉소 시장 친환경 바람

최근 플렉소 시장의 트렌드는 ‘친환경’이다. 친환경은 플렉소 인쇄시장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는데, 기저귀나 생리대와 같은 연질의 재질에 친환경 수성잉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플렉소용 친환경 잉크는 인체에 무해한 알코올 성분의 솔벤트 잉크와 수성잉크를 말한다. 이러한 친환경 인쇄 흐름은 인쇄 사보다는 네슬레, 킴벌리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서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저귀, 생리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의 경우 수성잉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토마스 브라나 중동·아시아지역담당 매니저는 “연포장 인쇄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전체 인쇄물의 36%가 아시아에서 인쇄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소마는 플렉소 인쇄기를 공급한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연포장 및 라벨인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절감·친환경인쇄 가능한 소마 플렉소 인쇄기

소마엔지니어링의 플렉소 인쇄기는 친환경 수성잉크를 사용해 얇은 재질에서도 고품질 인쇄가 가능하다. 특히 그라비어 인쇄의 경우 7~8도로 작업해야 하는 인쇄물도 백색+4도 인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원가절감도 가능하다. 또한 작업준비시간이 기존의 그라비어인쇄의 1/4에 불과해 소량 단품종 인쇄에 적합하다. 또한 인쇄 색맞춤도 100m 이내에서 가능해 세팅타임과 손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토마스 브라나 매니저는 “장통작업에서는 그라비어 인쇄가 유리하다. 하지만 준비시간이 1~2시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량단품종인쇄에는 불리하다. 반면 소마 플렉소 인쇄기는 준비시간이 짧아 소량 단품종인쇄에 적합하다. 그래서 소마 플렉소 인쇄기는 그라비어인쇄기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 재라고 보면 된다. 작업에 따라 그라비어로 할 것인지 플렉소로 할 것인지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2개의 건조유닛·건조터널 등 완벽 건조 시스템 갖춰

롤에서 롤로 인쇄하는 시스템으로, 롤에 감긴 원단이 인쇄유니트와 중앙 CI드럼에서 인쇄된 후 건조터널을 거쳐 다시 롤로 감긴다. 건조는 인쇄유니트 사이에 있는 중간 건조 장치와 최종 건조터널을 통해 건조된다. 또한 기계내부에 솔벤트 농도를 측정하는 LEL이 2개 있어 솔벤트 농도가 30% 이상 포화되면 알람이 작동하면서 기계가 자동으로 멈춘다. 한편 옵티마 인쇄기는 성능도 훌륭하지만 디자인도 뛰어나 최근 IF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

요크 쿨비츠 소마엔지니어링 아시아 사장은 “상업인쇄는 물론이고 연포장, 라벨인쇄시장에서도 소량단품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고품질 친환경 인쇄물 제작에는 소마 플렉소 인쇄기가 가장 적합하다”라며 “현재 유럽의 경우 플렉소 잉크, 판재, 부자재 등이 저렴한 편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도 최적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소개하여 가장 이상적인 인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소마 플렉소 인쇄기는 기존의 그라비어 인쇄기보다 솔벤트 73%, 에너지 30%, 잉크 23%를 절감할 수 있다.

소마엔지니어링은?

소마엔지니어링은 1890년 체코에 설립된 회사로 초창기에는 섬유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1992년부터 플렉소 인쇄기, 원단 재단기, 무용제 라미네이팅기, 플렉소 판 마운터, 디아커터 등을 포함한 연포장 인쇄기를 공급해 왔다. 공급하는 제품의 85%는 자체생산을 하고 있으며, 인라인으로 조립한다. 최근에는 Soma Globe centre를 설립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 개발과 고객지원 서비스, 기술 및 전문가 개발에 힘쓰고 있다. ↗



3



4

1. 이근성 프린밸트 대표이사(중), 토마스 브라나 소마엔지니어링 본사 중동·아시아지역담당 매니저, 요크 쿨비츠 소마엔지니어링 아시아 사장.
2. 소마엔지니어링 플렉소 인쇄기 옵티마
3. 체코에 위치한 소마엔지니어링 본사
4. villa globe에 위치한 소마 트레이닝 센터